



## 사이버 공간에 한민족의 야성이 발휘될 제3의 천년



남궁 석  
정보통신부장관

2000년 새 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한민족에게는 천년 단위로 역사를 돌아보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제1의 천 년 동안 한민족은 아주 웅대한 나라를 가졌습니다. 만주벌판에서 한반도에 이르는 거대한 땅덩이 위에 삼국이 정립해 천년동안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랑하는 한국의 문화유산은 대부분 최초의 천년 속에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경주와 백제와 만주벌판에 남아 있는 많은 유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선조들이 제1의 천년에서 만들어 놓은 문화의 힘을 자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한민족은 제2의 천년의 문턱에서 만주라는 거대한 땅덩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삼국이 멸망하고, 한반도에서 고려라는 나라가 출발했습니다. 제2의 천년 속에서 고려 4백년, 조선왕조 5백년이 유지되고, 마지막 1백년은 끝없는 수난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1백년간의 수난과 극복의 역사를 지닌 채 제3의 천년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돌이켜 보면 천년에 국토가 절반씩 줄었습니다. 제1의 천년에서 가지고 있던 만주벌판을 제2의 천년으로 넘어올 때 잃어버리고, 다시 한반도가 반으로 나뉘는 상태에서 제3의 천년을 맞이합니다. 어떻게 보면 천년에 국토가 반씩 줄어나간 매우 불행한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래 유목민족의 야성을 지닌 한민족이 한반도에 웅크리고 천년을 살면서 많은 수난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제3의 천년을 맞이하면서 광막한 만주벌판을 누비던 한민족의 야성을 불태울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광대한 영토를 운영할 기회입니다. 제3의 천년은 우리 민족이 다시 한 번 웅비할 수 있는 기회의 천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은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수 무기

이제 인터넷은 모든 사람들의 화두가 됐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도 인터넷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한 부처의 이슈가 아니라 국가의 이슈로서 말씀하셨습니다. 1천 배 빠른 인터넷, 고속통신망의 완성, 학교의 인터넷 설치, 모든 국민이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저소득층에게도 인터넷

# 새천년

을 활용할 수 있는 지원 등.....

여기서 우리는 인터넷을, 인터넷세계를 다시 한번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부는 우리 국민이 왜 인터넷세계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하고 정확한 해답을 국민들에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늘 해 온 얘기입니다만, 인터넷세계에서는 시공이 초월됩니다. 시간과 공간이 과거 농경사회나 산업사회와는 전혀 다르게, 더 넓고도 빠른 개념으로 다가왔습니다. 전쟁이나 돈을 주고 사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끝없는 가능성의 공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공간 속에서 수 억 명의 인터넷합중국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는 지금 약 2억5천만 명이 들어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합중국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2005년까지 7억명이 되리라는 예측이 있지만, 그 이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곳에서 전자상거래도 일어나 우리가 현실세계에서 사고 파는 일용품들, 아기 기저귀나 화장지까지도 주문을 하면 집에까지 배달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리고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교육이 그 곳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우수한 학생들이 전 세계 교수들의 강의를 마음대로 듣고 학점을 딸 수 있는 시대가 올 겁니다. 병원의 진료도 이제는 인터넷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많은 금융거래가 인터넷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미 우리 나라 사이버 증권거래는 세계 제1의 수준입니다. 이런 속도로 가면, 2005년경에는 인터넷을 생활의 무기로 사용할 줄 아는 개인과 기업과 국가는 반드시 번영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개인과 기업과 국가는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국정연설에서 대통령께서는 인터넷을 확산시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부는 국민들에게 이러한 인터넷세계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개념을 알리면서, 그 세계로 가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작년 초 우리는 약 3백만명의 인터넷 인구를 가지고 출발해 연말에는 7백만명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것도 아주 보수적인 계산법으로 7백만이고, 미국식으로 허용오차를 두어 계산하면 약 9백만에서 1천만명이 됩니다. 올해는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약 6백만명 이상이 늘 것입니다. 내년에는 인터넷 인구 2천만을 돌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구에 대해 왜 그 곳으로 가야하며 인터넷으로 어떠한 경쟁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줘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물론 기존의



책 속에도 여러 가지 해답이 있습니다마는, 이들이 모든 답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끝없는 상상력을 발휘해 책을 쓴다는 각오로 앞에서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고속통신망 확충 중장기계획 재검토 필요**

다행히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추진해 온 사이버 코리아 21이 거기에 대한 큰 윤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많은 인구가 인터넷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고속통신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존 5만8천km의 초고속망에 작년 중 2만2천km를 더 해 총 8만km의 고속통신망을 확보했습니다. 올해는 약 3만km이상을 더 늘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약 10만km의 고속통신망을 깎다고 해도, 2005년까지의 수요에는 절반밖에 미치지 못합니다. 제2의 확장계획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더 빠르고 더 큰 용량의 고속통신망이 필요합니다.

고속통신망의 완성은 'CYBER KOREA 21'의 첫 번째 과제이기도 합니다마는,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작년 초에 만든 고속통신망 확충계획은 아마도 5년 안에 포화상태가 되고 거의 두 배로 늘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다시 한 번 다듬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국민 정보화교육 강화**

두 번째 과제는 우리 국민에 대한 컴퓨터교육입니다. 작년에 우리는 이 문제를 사회에 제기했습니다. 1천만 학생, 60만 군인, 90만 공무원, 그리고 사회교육 등 4개 분야의 컴퓨터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작년은 출발에 불과합니다. 정확히 어떤 프로젝트로 몇 명을 교육시켰다고는 얘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금년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중요 국정과제로 학교 컴퓨터교육을 말씀하셨습니다. 인터넷을 무료로 제공하는 범위를 정하고, 각 교실에 컴퓨터 보급을 약속하시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파괴력을 가지고 사회 전반의 컴퓨터 교육열기를 확산시킬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보통신부는 현실적인 프로젝트들을 세워 하나 하나 착실히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국민 정보화교육 계획에 추가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학생, 공무원, 군인 등을 위한 공식적인 교육기관 외에도 사회 전반의 인터넷 이용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플라자, 또는 PC방이라는 이름으로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몇 만개의 인터넷 이용시설이 그것입니다. 자생적으로 발달한 이들을 누구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밝은 코너로 양성하기 위해 제도를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산업 육성은 세계 일류의 길**

정보통신산업은 우리에게 대단히 밝은 측면입니다. 산업사회에서는 우리가 일본에서 이미 한번 사용된 기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본을 따라 잡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일본을 따라 잡는다

는 것은 세계 일류가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칼라TV를 아무리 잘 만들고 1년에 2천만 대를 수출해도 일본의 소니나 마쓰시다 제품보다 약 15% 싸게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수모랄까 하는 것을 받아가며 산업사회를 지내 왔습니다.

그런데 정보화사회로 오면서 일본에서 기술을 받지 않고 우리가 서구에서 직접 원천기술을 수입해 발전시킨 반도체라든지 TFT/LCD, 디지털TV, CDMA 등의 정보통신산업분야가 일본을 저 멀리 제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저력, 정보통신산업의 굉장한 활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산업사회에서 왕자 노릇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기존 제품의 부품 공급국이었던 때 문입니다. 이제 TFT/LCD분야나 인공위성 분야, 디지털TV분야, CDMA분야 등 첨단 정보통신산업에서 핵심 부품을 쥐는 나라는 일본을 추월할 수 있고, 일본을 추월한다는 것은 세계 일류가 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 나라입니다.

장비분야 뿐만 아니라 통신 서비스산업도 대단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1982년도 한국통신이 공산화 할 당시 우리 나라 통신서비스 총 매출액이 약 2조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2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17년만에 무려 열 배가 불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무선분야 매출액이 유선분야를 따라잡는 등 통신서비스의 구조도 유선에서 무선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인터넷, 즉 데이터 분야 매출액이 유무선을 합한 것보다 많아지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 분야의 성장속도는 대단히 폭발적이어서, 10년 이내에 200조원 시대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시장을 어떻게 국내 정보통신산업 발전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국제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치밀하게 연구를 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도 전망이 아주 밝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24개 소프트웨어진흥구역을 만들고 이 곳에서 젊은이들이 쉽게 창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여기서 유망한 기업을 선발해 실리콘밸리로 보내는 실리콘로드 프로젝트의 토대도 마련됐습니다.

24개 진흥구역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에 접근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승부를 걸 수 있는 미국 현지 지원센터를 확보했습니다. 이 곳에 3월까지 약 80개의 우수업체를 내 보내서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쟁하고 세계적인 자본과 만나도록 해 봅시다. 이렇게 5년, 10년을 계속하면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아주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유망한 분야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보화경쟁은 인프라싸움에서 콘텐츠싸움으로 양상이 바뀔 것입니다. 누가 무슨 내용의 정보를 창출하거나 가지고 있느냐 하는데서 승부가 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간이 정보를 서비스하는 인프라는 어느 정도 갖췄지만, 고부가가치의 콘텐츠서비스는 아직 미약합니다.

인터넷에 흐르는 대부분의 콘텐츠는 약 70-80%가 미국에서 생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아는 어떤 의미에서 '콘텐츠의 보고(寶庫)'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의 유구한 역사 속에는 세계인이 공유할만한 가치 있는 콘텐츠가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를 잘 개발한다면 미국을 압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산업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전자정부 구현 - 'Speed of Will' 의 문제

개인과 기업이 정보화로 가는 전진 속도에 비해 정부분야는 매우 어렵습니다. 정부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의지가 약해서 정보화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 전부터 'Speed of Light', 즉 빛의 속도라는 말을 써 왔습니다. 정보화사회에서는 빛의 속도로 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작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Speed of Thought' 라고 했습니다.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의 속도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 저는 'Speed of Will' 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의지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빛의 속도나 생각도 무의미합니다. 정부가 변화하려면 빛의 속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 의지를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가가 우리의 과제입니다.

정부가 앞에서 끌 것인가 정부가 뒤따라가면서 발목을 잡을 것인가 하는 것은 정부를 이끄는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이 점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미국의 앨 고어 부통령은 국민들에게 "여러분의 연금을 여러분의 주머니에 넣어 드리겠다"는 아주 간결한 구호로 정보화를 설득시켰습니다.

우리의 정부 정보화는 국민들에게 "누구든지 빈 몸으로 정부기관에 가서 일을 끝마치고 나오게 해 주겠다"는 약속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러 정부기관에 들어가면 주민등록등본, 납세필증, 은행 잔고증명, 병역필증 등등 별 걸 다 떼 오라고 합니다. 정부가 다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입니다.

이 정보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필요한 것을 스스로 찾아 그 자리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부가 되려면, 이것은 Speed of Light의 문제가 아니라 Speed of Will의 문제, 의지의 문제인 것입니다. 정부기관들이 이 의지를 갖도록 정보통신부 요원들이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합니다.

### 우체국을 정보화 확산기지로 육성

우체국을 정보화 확산기지로 만드는 작업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는 민간에서 오랫동안 경영을 해 봤지만, 우체국만한 인프라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전국 3천6백여개의 우체국은 어딜 가나 업무가 표준화돼 있고 질서가 잡혀 있습니다. 어떤 대기업도 이렇게 탄탄한 인프라는 없습니다.

이 훌륭한 인프라를 이제는 우편물을 배달하는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정보화의 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우체국으로 탄생시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작년에 어느 정도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지역 공동체의 정보화기지로 완벽하게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의 서비스까지 할 수 있는 체제를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정보격차 해소 심각하게 고민

마지막으로 정보 격차에 대한 문제입니다. 최근 어느 신문에 실린 네그로폰테 교수의 대담기사

를 보니까 '소익부 노익빈(少益富 老益貧)'이라는 신조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부자가 되고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가난해진다는 뜻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새로운 시대에 도전하면서 스톡옵션 등을 받아 부자가 되지만 그렇지 못한 노인 그룹은 점점 더 가난해진다는 겁니다. MIT의 더투저스 교수도 'What will be' 라는 저서 마지막 부분에서 많은 지면을 할애해 정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아주 값싸게, 모든 국민 누구나 똑같은 고급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인가가 우리의 큰 과제입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는 생산적 복지라든지 저소득층 지원이라든지 하는 데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명하셨습니다. 우리도 정보화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사회의 모세혈관 끝까지 빠짐없이 고급정보를 받아 볼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안고 우리는 2000년을 맞이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자질을 가진 우리 한 민족이 다시 인터넷이라는 광야로 나가 기마민족의 야성을 불태울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1천년간, 1백년간은 예측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대통령의 의지와 정확한 국정방향이 있고 정보통신부 직원들의 능력이 있고 막 꽃피기 시작한 벤처기업가들의 정열이 있는 이상, 앞으로 20년간은 우리 민족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아침 21세기를 이야기 합니다.

오늘 시무식에 정보통신부 직원 여러분과 산하기관 대표들께서 모두 참석해 주셨습니다. 희망찬 2천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본인은 물론이고 가정과 직장 모두에 새로운 정신, 새로운 기풍이 가득한 가운데 건전하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정보통신부 모든 요원들에게 한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공부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2천년을 리드하는 위치에 있지만 여러분이 공부를 게을리해 뒤떨어지면 우리 나라가 위태로워집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전진을 해야 하고 여러분이 개념을 정립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거시적인 정책을 제시하시면 여러분은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 이를 구체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 분야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서 자신의 소신이 샘솟아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이 점을 여러분에게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오늘 아침 신년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